

부산경실련 해수욕장 피서객 설문

“주차난 가장 짜증”

올 여름 부산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에게 주차문제가 가장 불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4일까지 매주 목·일요일 모두 8차례에 걸쳐 부산지역의 주요 해수욕장인 해운대·광안리·송정·송도해수욕장에서 ‘해수욕장 실태 및 피서객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부산지역 해수욕장의 가장 불편한 점에 대해 전체 응답자 146명 중 30%인 44명이 ‘주차문제’를 꼽았다.

“요금도 너무 비싸” 수질 불량도 지적 “화장실 불결” 23%

공영주차장은 평상 공정가격을 받았지만 면수가 크게 부족했고 일부 민영주차장은 주차시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1만5천~3만원의 바가지 요금을 요구했다. 주차안내 표지판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특히 광안리해수욕장의 경우는 임시주차장 안내판이 해수욕장 입구에 안내되어 있어 혼잡한 도로에 들어서고 난 뒤에야 안내판을 볼 수가 있어 주차 불편은 물론 교통체증마저 유발해 했다.

‘주차문제’ 다음으로는 ‘수질 불량’ (40명·27%)을 지적했으며 특히 광안리·송도해수욕장의 수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화장실 청결불량 및 부족’ (33명·23%)도 주요 불편사항으로 꼽혔다.

반면 고질적 문제점인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은 각각 12명 (8%), 5명(4%)에 불과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수욕장별 물품 대여 요금이 제각각이어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실제로 튜브의 경우 광안리와 송도해수욕장이 3천원의 대여료를 받고 있는 반면, 해운대·송정 해수욕장에서는 5천원을 받았다. 보관함이나 돛자리 또한 가격이 제각각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운영이 지역봉사단체에 위탁되면서 수익금이 해수욕장 발전에 쓰이지 않고 일반 봉사활동비로 지출되는 점 또한 개선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였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바가지 요금과 같은 잘못된 상흔이 많이 줄어든 점은 크게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까지 근절된 상황은 아니다”며 “부산의 대표적 명소인 해수욕장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놀거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서객을 위한 작은 서비스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종열기자 bell10@**

부산추모공원 건립 본격화

납골당 설계기본안 확정... 내년 초 착공 2008년 완료



부산 기장군 정관면 두령리 일대에 조성되는 부산추모공원(시립공원묘지)의 납골당 설계기본안(그림)이 마련돼 이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전국 현상모형을 통해 (주)부산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정태복)에서 작성한 부산추모공원 납골당 건립 설계도를 설계기본안으로 결정, 최근 설계계약을 끝내고 본격적인 조성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설계기본안에 따르면 모두 10만위가 봉안될 부산추모공원의 납골당(2개동)은 지하 1층·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조선왕조의 제례공간인 종묘 배치 개념을 도입, 한국 전통전례의 공간적 개념을 살렸다.

또 납골당 앞에 문화전시공간인 장묘문화관을 조성, 시민들에게 장례문화 홍보·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전체 추모공원조성사업 완료를 당초 목표인 2007년 말보다 1년 지연된 2008년 12월로 예상하고 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년 12월까지 만장(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추모공원 내 납골당만이라도 완공해 가사용 승인을 얻어야 할 형편"이라면서 "납골당 조성은 올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받아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완공하기에는 시일이 매우 빠듯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전체 추모공원조성사업 완료를 당초 목표인 2007년 말보다 1년 지연된 2008년 12월로 예상하고 있다.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는 553억원가량의 공사비가 소요되며 납골 수용 규모는 납골당 10만위를 비롯해 가족납골묘 12만위, 벽식납골묘 3만위 등 총 25만위이다.

추모공원에는 납골당뿐만 아니라 장묘문화관, 전망대, 주차장 등 부대 시설과 휴양림 등의 공원 녹지가 조성된다.

부산도시공사는 다음달 4일 공사 4층 세미나실에서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달식기자 dosol@busanilbo.com

내일의 날씨 <1일> 해돋이 05:56 해질 18:52 달뜨기 13:45 달지기 23:12

지역	날씨	기온
서울	구름	21~28 / 10~20
대전	구름	20~28 / 10~20
광주	구름	21~28 / 20~20
대구	구름	22~28 / 10~10
진주	구름	21~28 / 20~20
남해	구름	23~27 / 20~20
창원	구름	21~28 / 20~20
부산	구름	21~26 / 20~20
제주	구름	23~28 / 20~20

바다날씨	풍향	풍속	파고
남해동부	북동~남동	10~16	2.0~4.0
남해서부	북동~남동	10~16	2.0~4.0
동해남부	북동~남동	8~13	1.0~2.5
동해중부	북동~남동	8~12	1.0~2.0
서해남부	북동~남동	7~12	1.0~2.0
서해중부	북동~남동	5~9	0.5~1.0

시간	만 조	간 조
부산	00:23/13:07	06:24/20:04
포항	- / -	- / 16:40
통영	00:43/14:16	07:03/21:05

구분	2	3	4	5	6
부산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경남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경북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서울경기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강원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호남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생활지수: 외출지수 90, 상쾌한 야외 공기, 빨래지수 70, 야외 건조 좋아, 식중독지수 70, 음식 주의, 수면지수 50, 더위가능캐짐

www.weatheri.co.kr 02-704-0030

“아이 쇼핑물 추락사 부모 80% 책임”

법원 “보호의무 소홀” 판결 등 3천62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쇼핑몰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많이 오는 곳인 데도 벽 난간에 어린이들이 올라타는 것을 막거나 추락 방지 시설이 안 돼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는 추락 방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이인규 판사는 31일 쇼핑물 난간에서 추락사 한 이모(당시 4세)가 가족이 H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3천62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쇼핑몰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많이 오는 곳인 데도 벽 난간에 어린이들이 올라타는 것을 막거나 추락 방지 시설이 안 돼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는 추락 방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모 역시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아이를 추락하게 한 과실이 있는 만큼 쇼핑물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법원**



가을 꽃동산 한낮은 띄박별이지만 이미 산들바람 부는 가을이다. 31일 부산 사상구 감전동 들꽃 체험학습장에서 유치원생들이 활짝 핀 ‘꽃범의 꼬리’ 사이를 앙증맞게 걸어가고 있다. **이재찬기자 chan@**

아내 누드사진 게재 대학교수 영장 기각

자신의 아내 누드 사진 등을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대학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의 모 대학 겸임교수 K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이트에 사진을 올린 사람이 40여명이 되는데 이 가운데 K씨만 유독 구속돼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행정성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 판사는 또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연성은 있으나 그것이 제한돼 있고 또 다른 사람들처럼 K씨도 자신의 아내 동의하에 사진을 올린 점도 참작이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아내와 애인의 누드 사진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강모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K씨와 사이트 운영자 이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

가정통신문으로 제공되는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나 성적, 출결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 1일부터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내 자녀 바로 알기’

자녀 학생부 9월부터 인터넷 확인

교육부, 학부모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이용하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상의 학적사항, 수상경력, 진로지도상황, 창의적 재량 활동상황, 교외 체험학습상황, 교과트 운영자 이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

가정통신문으로 제공되는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나 성적, 출결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 1일부터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내 자녀 바로 알기’

학기별 편제 및 과목, 연간 중간·기말 시험 일자, 교내 체육대회, 체험학습 일자, 방학 일자 등 학교 교육과정과 학사일정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한국전산원 등 6개 기관(http://www.neis.go.kr) 또는 금융기관 신원 확인용 공인인증서로 접속할 수 있으며, 사용설명서는 http://www.neis.go.kr에서 (해당교육청 클릭-학생정보 열람신청-내 자녀 바로 알기 서비스 사용설명서)를 클릭해 내려받을 수 있다.

김두연 교육행정정보화팀장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만 전달됐던 학생의 학교생활 정보를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어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습정보, 진학정보, 취업정보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법원**